



엄마 젖은 신이 주신 최상의 선물

김인호/일동후디스(주) 홍보실장

전 세계 모든 엄마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

엄마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신과 태어난 아기를 건강하게 잘 돌보는 것으로서 모유수유는 엄마에 있어서 원활한 자궁수축 및 가슴수축을 도와 본래의 신체균형을 빠르게 해준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엄마 젖을 먹임으로써 아기와의 친밀감을 일으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 여성으로서의 성취감을 불러 일으킨다.

즉, 엄마 젖을 먹이는 일은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의무임과 동시에 아기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박한 특권이다.

모유수유는 아이를 위해서나 엄마를 위해서나 빨리하는 것이 좋다.

아기출산 후 첫 10일동안은 초유가 나오는데 초유에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지방과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으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주는 여러 항체가 들어 있고 두뇌발달 및 발육을 도와주어 신생아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영·유아식 전문식품회사에 재직하면서 엄마 젖을 못먹인 아기를 위해 엄마 젖에 가까운 분유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해오다가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청정함을 아기에게 주자" "한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분유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출시된 고품질 청정분유 "후디스트루맘!"

세계적인 청정지역 뉴질랜드 자연초지에서 방목한 건강한 젖소의 원유를 집유에서 제조까지 24시간 내에 제품화하여 자연의 영양과 깨끗함이 그대로 살아있으며 농약, 제초제, 성장호르몬, 인공사료와 일체 관계가 없으므로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의 염려가 없다.

우리는 많은 회의를 거치는 동안에 아무리 좋은 분유를 잘 만들어도 모유만큼 될 수 없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인정하고자 결정했다.

분유를 많이 팔기 이전에 아기건강을 위해 더 많은 어머니들이 모유를 먹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해낸 분유의 컨셉이 "전 모유로 키울거예요. 그 다음엔 트루맘이죠"이다.

홍보작업은 매우 잘 진척되었다. 광고의 멘트는 얼마전에 아기를 출산한 탤런트 김미숙씨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 결정되었다.

"모유 먹일 거예요. 그 후엔 트루맘이죠" 이 멘트는 바로 모델이기 전에 엄마인 김미숙씨의 마음이기도 했다.

광고 역시 번쩍거리거나 화려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진솔하게 한 엄마인 김미숙씨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다.

모유만큼은 못하지만 모유 성분에 가장 가깝게 설계된 좋은 분유, 좋은 제품을 정직하게 만들어 아기들이 더 좋은 성분과 깨끗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30년 전통의 영·유아식 전문회사인 일동후디스의 보람이자 한 직업인으로서의 나의 꿈이다.

